



주 제:	“믿음”	“대림 제 4 주일 “	2009년 12월 20일
복음 묵상:	[루카 1,39-45]	[미가 5,1-4 7]	[히브 10,5-10]

벌써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다. 주님 오심의 시간이 임박하다. 잘 준비해온 사람에게는 벅찬 기쁨의 기다림이겠으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는 또 다시 아쉬움이 크다. 그때그때는 무언가 사로잡는 일들로 황망히 부지런히 지내온 것 같은데, 돌아보려니 중요한 걸 또 놓치고 온 것이다. 인생의 시간에서도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의 정취를 전하는 릴케의 시 「가을날」이 문득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우리에게 마음 같이 여겨진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남아… 나뭇잎들이 튕굴 때면 가로수 길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거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나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다. 주님 오심의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이다. 나의 결정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려고 하시는 분께 나를 열어 드리는 기다림이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하찮은 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힘, 약속이 주어진 것이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그 벅참을 노래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루카 1, 43)

내 방식대로 응답하고,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움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스스로 함당하다고 하는 이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보잘 것 없는” 베들레헴에서 (미가 5, 1) 시작하셨던 것처럼, 나에게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새로이 시작하시고자 하신다.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 38) 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겸손과, 하느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모두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남은 기다림의 시간동안 믿음과 겸손으로, 작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그에 응답하신 마리아의 복됨을 새겨야 한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카 1, 42. 45) (대구 이경수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2009년 성심 성가대 총회 겸 연말 파티: 12/20 오후 6:30 / 장소 : 한성 갈비.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시기 미사 안내

- 대림 제 4 주일;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힘.
- 성탄 전야 음악회; 12/24(목) 7:30-8:30 pm
- 예수 성탄 밤 미사; 12/24(목) 9:00 pm
- 예수 성탄 대축일 : 12/25(금) 10:30 am
- 송년 미사 : 12/31(목) 9:00 pm
-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 2010년 1월 1일: 10:00 am

+ 복음 [루가 1,39-45]



그 무렵 39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1분 명상

♡"기적"♡

- 탁 낮은 -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푸른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움과 평화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현재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새롭고 경이로우며 우리의 병든 영혼과 신체를
깨끗이 낮게 해주는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기적의 삶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Nelson Mandela]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1 코린 8.3)."